

News

정은보 "실수요자 수요 예외....내년 가계부채 5%증반대 관리"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를 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 공급 문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 예정 시장 불개입 원칙 변복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 다만 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 해나갈 예정 언급

내년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DSR 규제 강화에 600만명 영향권

머니S

내년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 영향권에 드는 대상자는 600만명에 육박…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연령층은 40대가 될 전망 대출 2억원 이상 보유한 대출자 중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1.4%로 가장 많아… 고소득자보단 저소득자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보증신청

헤럴드경제

IBK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비대면 보증부대출 프로세스는 내년 상반기 도입 계획 비대면 보증 및 대출 금융상품 공동개발, 상거래 신용지주 활성화 및 교류 확대, 협약 당사자 간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예정

시중은행 '만 41세' 도 희망퇴직자...인터넷은행은 대규모 '개발자' 채용

이코노미스트

시중은행들 희망퇴직 연령 낮추며 인력 감축에 들어간 반면, 인터넷은행은 대규모 인력 채용…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인력 감축 대비 공격적인 IT 인재 모시기 7개 은행의 올해 희망퇴직자는 4,888명… 희망퇴직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규모 신입 개발자 모집 중

신한라이프, 생보사 첫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승인

대한금융신문

신한라이프, 생보사 처음으로 금감원으로부터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승인 받아… 신한큐브온 연내 설립 후 사업자 등록 마칠 예정 지난 3월 론칭한 하우핏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약 28만 명 기록

교보생명보험,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뉴스1

교보생명보험,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 21일 제출… 1958년 6월 30일 설립돼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 현재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36.9% 지분 보유… IPO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아…

'대어 IPO' 끝난 11월 주식 발행 22.4% 감소…회사채는 5.1% 늘어

뉴스1

11월 주식발행 규모가 10월과 비교해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IPO 시장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대어가 없었던 점이 영향 일반 회사채 시장은 금리 상승으로 일찍 북클로징에 들어갔지만 금융채와 ABS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자본조달은 전월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

증권사 과징금 재검토 금감원...정은보 "금융위와 협의해 최종 판단"

머니투데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시장조성자 제도의 실제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결론낼 것 현재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 사전통보된 과징금에 대한 조정 문제 등을 협의 중… 추가 서면 검사를 통한 최종 검사 결과 진행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